

사회  
Society

(국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촛불집회 진행... 100만 명이 모인 평화집회로 기록  
(해외) 美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 확산... 미국 전역이 대선 여파로 혼란

기술  
Technology

(국내) 이동통신사, 사물인터넷 영토 확장 가속화  
(해외)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 '족스(Zoox)'... 창업 2년만에 시장가치 15억 5천만 달러로 평가

경제  
Economy

(국내) '트럼프 쇼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해외) 인도, 검은 돈의 근절을 위한 '화폐개혁' 단행... 고액 지폐 사용 중단·신권 공급 부족 등 경제 혼란 가중

환경  
Environment

(국내) 정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 전략' 발표  
(해외) 파리 기후 협정, 도널드 트럼프의 美 대통령 당선으로 발효하지마자 위기에 직면

정치/행정  
Politics

(국내) 대통령, 국무총리에 내각 통할권 보장 약속... '책임총리제' 실시 여부에 주목  
(해외) 도널드 트럼프, 여론조사 예상 뒤엎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NEAR & Future Weekly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이슈 탐색을 통한 미래사회 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 금주의 키워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행정 각 분야별 뉴스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노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수집  
NIA 빅데이터분석활용인프라에 수집되는 일간지 및 전문기관 보고서 등 분야별 뉴스사이트 346여개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 금주의 토픽

매주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선정하고, SNS 분석을 통해 토픽에 대한 일반국민의 세부 관심사와 여론 동향 분석

해경특공대원순직

촛불집회 문화계특혜의혹

세월호7시간 **최순실** 엘시티비리의혹

체납차량압수

승마특혜의혹 성형외과특혜의혹

국가장학금

대리처방의혹 누리과정 슈퍼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촛불집회 진행...  
100만 명이 모인 평화집회로 기록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이 모여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sup>1)</sup>

3차 촛불집회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대한 특혜 의혹<sup>2)</sup>을 비롯해 최 씨가 대통령의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까지<sup>3)</sup> 드러나면서 팽팽한 긴장 속에 개최되었으나 충돌 없이 마무리

법원은 처음으로 울곡로 행진을 허용하였으며<sup>4)</sup>,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풍자극 등 각종 문화 공연을 즐기고<sup>5)</sup>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일부 흥분한 참가자를 자제시키며 평화적으로 진행

청와대는 100만 촛불 행렬로 증명된 엄중한 민심을 받아들이고 향후 사태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sup>6)</sup>

【1~3차 촛불집회 특징<sup>7)</sup>】

날짜	1차 (10월 29일)	2차 (11월 5일)	3차 (11월 12일)
주최 측 추산 참가 인원	2만 명	20만 명	100만 명
경찰 추산 참가 인원	1만 2천 명	4만 5천 명	26만 명
경찰 연행 인원	1명	1명	23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순실 사태 관련 첫 대규모 집회</li> <li>큰 충돌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위에 앞서故백 남기씨 영결식</li> <li>경찰이 행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이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으로 광화문 앞 8개 차로 울곡로 행진 허용</li> <li>야당 지도부 공식 참석</li> </ul>

검찰, 최순실씨 기소 앞두고 혐의 입증에 주력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구속하였으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소환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까지 발표하는 등 최씨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입증에 주력<sup>8)</sup>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보육대란 우려 증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가운데<sup>9)</sup>,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sup>10)</sup>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 지속에 따른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 증가

교육부, 국가장학금 산정에 절대 소득기준 도입하고 성적기준 완화하는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sup>11)</sup>

행정자치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의 영치를 일제 실시<sup>12)</sup>

1)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 청와대 향한 '평화로운 분노'", 한국경제, 2016.11.13  
 2) '순방 동행청와대 남풍.. 성형외과도 특혜 의혹', MBC, 2016.11.09  
 3) '최순실 진료기록에 박대통령 대리처방 정황 확인', 연합뉴스, 2016.11.14  
 4) '촛불집회 행진금지 또다시 체면구긴 경찰.. 울곡로 허용 허용', 뉴시스, 2016.11.12  
 5) '아이들 음악·버스킹·풍자극.. 작은 공연 평화 분위기 띄웠다', 헤드라인경제, 2016.11.14  
 6) '최대통령 촛불집회 관저서 보고받아.. 卍 추가 민심 수습책 결정 못해', 뉴시스, 2016.11.13  
 7) '1차 촛불 2만→ 2차 20만→ 3차 100만... 대통령의 영혼없는 사과, 기를 부렸다', 동아닷컴, 2016.11.14

8) "이재만안봉근 소환조사, 최순실 혐의 입증에 총력", 파이낸셜뉴스, 2016.11.14  
 9) "12개 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 '보육대란' 우려 ↑", 연합뉴스, 2016.11.13  
 10) "서울 등 10곳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 보육갈등 예고", 매일경제, 2016.11.10  
 11) '저소득층(학점 두 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가능)', 중앙일보, 2016.11.14  
 12)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뉴시스, 2016.11.08

U.K. Supreme Court Gunman attack  
 Black money Child abuse Public service  
 Earthquake Social media Anti-refugee wall  
 Cricket Trump protests  
 Police shooting  
 National Parks Free Days

## 美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 확산… 미국 전역이 대선 여파로 혼란<sup>1)</sup>

미국 대선 이후 뉴욕·로스앤젤레스·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반대 시위가 닷새 째인 13일(현지시간)에 이르자 메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펜실베이니아 주 에리·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등 소도시·농촌 지역까지 확산

전 날 뉴욕 시 맨하탄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주변에는 약 2만 5천 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트럼프 당선자의 인종·성 차별을 비난하는 문구를 적은 카드를 들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반 트럼프 움직임 논란

뉴욕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시위들 중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질하여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시위 참여자 180명이 체포되고, 오레건 주 포틀랜드에서도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71명이 경찰에 연행

한편, 시위 열기는 해외로까지 가속되어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도 수 백 명이 참여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려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인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 관련 중요 범죄 급증 우려

### 뉴질랜드, 규모 7.8의 강진과 쓰나미 발생… 산사태·도로 붕괴·지진 등으로 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고립

14일 자정 경(현지시간) 뉴질랜드 남부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과 규모 6.8과 6.2의 여진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폭우와 2m 높이의 쓰나미<sup>2)</sup>로 인한 산사태·도로 붕괴 등의 재해가 추가 발생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고립<sup>3)</sup>

### 獨 원한의 난민 숙소 주변에 세워진 베를린장벽보다 높은 반 난민 장벽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

8일(현지시간) 독일 원한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난민 160명이 거주하게 될 숙소에서 25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평온한 거주권 보호를 명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4m 높이의 장벽을 세운 것으로 난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난 여론 확산<sup>4)</sup>

### 美 대선 당일, 캘리포니아 대선 투표소 근처에서 총격 사건 발생…인근 투표소 2곳과 학교 폐쇄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미국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아주사의 투표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1명 사망, 4명 부상)하여<sup>5)</sup> 인근 투표소 두 곳과 학교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조사 결과 범인은 선거와는 무관한 여성으로 확인<sup>6)</sup>

1) "Day five of anti-trump protests continued in a number of cities", NBC News, 2016.11.13

2) "New Zealand earthquake: Tsunami hits after magnitude-7.8 quake strikes near Christchurch", ABC News, 2016.11.14

3) "New Zealand Earthquake Up to 100,000 landslides, flooding, aftershocks rattle country, thousands stranded", Weather Channel, 2016.11.15

4) "German town builds 13ft wall to separate refugees from residents", Independent, 2016.11.08

5) "California shooting: one dead and four wounded after gunman opens fire near polling station", Telegraph, 2016.11.08

6) "Polling stations close amid manhunt for heavily-armed gun WOMAN after one person is killed and three are injured in California shooting", Daily Mail, 2016.11.08

국제해저케이블 렌터카관리  
 유료방송발전방안 5G 지상파UHD  
**사물인터넷** MDD 폴더블스마트폰  
 앱선택재 도시가스원격검침  
 중국사이버보안법  
 빅데이터예측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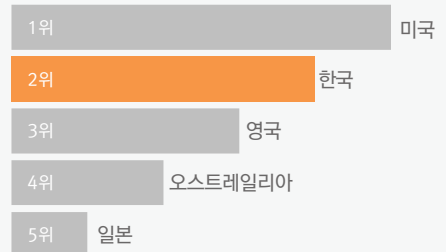
## 이동통신사, 사물인터넷 영토 확장 가속화

【 G20 국가 사물인터넷 발전 기회 지수<sup>2)</sup>】

지난 14일 이동통신사들은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활용한 '렌터카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물 균열 감지 서비스', '도시가스 원격검침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이종 업종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sup>1)</sup>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은 사물인터넷 전용망(LoRa, LTE-M, NB-IoT 등)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사물인터넷 영토 확장 경쟁이 활발

한편, 시장조사업체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 중 한국은 사물인터넷 발전 기회가 두번째로 높은 국가로 사물인터넷에 특화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 기회를 증진시키는 비즈니스 환경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확인<sup>2)</sup>



※ 시장조사업체 IDC가 최근 발표한 G20 Internet of Things Development Opportunity Index

## KT-SK텔레콤, 5G 서비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 경쟁 치열

KT는 지난 8일 5G-SIG(5G 협의체) 규격을 공개하며 2019년 5G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SK텔레콤도 5G 표준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위한 무선통신 표준 규격을 개발하는 등 5G 서비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제표준 경쟁이 치열<sup>3)</sup>

## 삼성전자, 美 특허청에 여러 개의 힌지로 구성된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출원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폴더블 스마트폰(접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등록된 랜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은 허리 부분이 여러 개의 힌지로 이루어져 있어 스마트폰을 접으면 이 부분이 늘어나 탄력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sup>4)</sup>

##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 허가...재원 마련·장비 부족 등 해결 과제 산적<sup>5)</sup>

## 중, 사이버보안법 통과로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데이터 반출 불가...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 예고<sup>6)</sup>

1) "IoT 영역확보 불붙었다.. 가스검침·렌터카까지 침투", 한국일보, 2016.11.14  
 2) "한국, G20 국가 IoT 발전 기회 지수 2위", ZDNet Korea, 2016.11.09  
 3) "SK텔레콤 vs KT, 세계 첫 5G 상용화 놓고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 파이낸셜뉴스, 2016.11.10  
 4) "'삼성 폴더블폰은 이런 모습?' 특허서 랜더링 등장", 아시아경제, 2016.11.10  
 5) "UHD 방송 허가... '내장 안테나, 재원 마련 등 과제 풀어야'", KBS, 2016.11.12  
 6) "'승인받은 데이터로만 비즈니스해라'", 사이버보안법 승인, 조선일보, 2016.11.08

Facebook-Blitz Tizen developers  
 Facebook ads Data privacy  
 Hyperloop NASA satellites  
 iPhone apps Supermoon  
 Google software Drone research  
 Russia-LinkedIn Startup

##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 '족스(Zoox)'... 창업 2년만에 시장가치 15억 5천만 달러로 평가<sup>1)</sup>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스타트업인 족스는 최근 5천만 달러(한화약 580억 원)를 투자 받아 누적 투자 유치액 2억 4천만 달러(한화약 2천8백억 원)를 달성하는 데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이 족스의 시장 가치를 15억 5천만 달러(한화약 1조 8천억 원)로 평가하여 업계의 관심 집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족스는 호주의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팀 켈들리 클레이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팀 소속 엔지니어 제시 레빈슨이 설립한 이래 알파벳·애플·테슬라 모터스의 유능한 임원들이 족스에 합류

IEEE 스펙트럼에 따르면, 창업 초기의 족스는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무인자동차 개발에 주력했지만, 클레이에 의하면 최근에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 분석

한편, IHS 오토모티브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와 무인자동차가 각각 30만 대로 증가하고 실제 운행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2035년에 이르면 자율주행차 1천 1백만 대와 무인자동차 1천만 대가 상용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

## UAE 두바이, 2020년까지 시속 약 1천 2백km의 차세대 이동 수단인 '하이퍼루프' 시스템 건설 계획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최고 시속 1,220km의 초고속 미래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하이퍼루프원과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0km 구간을 건설·시험 운행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sup>2)</sup>

※ 하이퍼루프: 대형 진공 파이프 안에 캡슐형 객차를 위치시켜 자기장 또는 초고압 공기를 이용해 쓰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가 장점이자 특징

## 삼성전자, 자체 OS '타이젠'의 생태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타이젠 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진

삼성전자는 자체 운영체제(OS)인 '타이젠'용 모바일 앱과 게임 개발 독려를 위해 내년 2월~10월까지 '타이젠 스토어'에 등록된 앱 중 다운로드 수 상위 100개 앱에게 각각 1만 달러(한화약 1천 1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혀 타이젠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sup>3)</sup>

## 68년 만의 슈퍼문 관측에 전세계가 관심... 다음 슈퍼문은 2034년

미국 포브스 외 세계 언론들은 13일 밤(현지시간) 뜰 예정인 슈퍼문은 월 평균 보름달 크기보다 14% 크고 30% 더 밝은 데다가, 68년 만에 찾아온 슈퍼문으로 이번 관측 기회를 놓치면 2034년 11월 2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하여 세계인들의 관심 집중<sup>4)</sup>

1) "Self-driving car startup now valued at \$1.5B", Computer World, 2016.11.08

2) "Hyperloop's first track could be built in Dubai", CNN Money, 2016.11.08

3) "Samsung offers developers \$10,000 per app via Tizen mobile app incentive program", Tech Times, 2016.11.13

4) "Tonight is a record-breaking Supermoon - the biggest in 68 years", Forbes, 2015.11.13

미래에셋-PCA **트럼프 쇼크** 기준금리동결  
**불확실성** 한미FTA  
 아파트값 부동산대책 시장안정화조치  
**미국금리인상가능성**  
 우리은행민영화 코리아세일페스타

## '트럼프 쇼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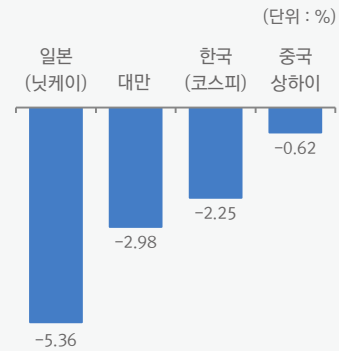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sup>1)</sup>

특히, 트럼프 쇼크로 인해 안전자산(금·엔화·채권 등)으로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으며, 코스피는 한때 1,930선을 기록하고 코스닥 6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도 급락<sup>1)</sup>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 불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에 증시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sup>3)</sup>

지난10일 다행히도 트럼프 정부의 성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나<sup>4)</sup>,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당분간은 혼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sup>5)</sup>

【트럼프 당선일 아시아 증시 변동<sup>2)</sup>】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우려 확대... 재협상 시 수출 손실 30조원 추정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일방적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될 경우 향후 5년간의 수출 손실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sup>6)</sup>

## 우리은행, 15년 만에 민영화 성공... 지분 중 30%를 7개의 투자자에 매각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의 51% 중 30%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7개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5년만에 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우리은행은 민간 주주 중심의 이사회 경영 체제로 전환 예정<sup>7)</sup>

※ 7개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키움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동양생명, IMM프라이빗에쿼티

## 코리아세일페스타, 4분기 GDP 0.13%p 상승 견인... 내수 진작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효과로 올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13%p 상승하고 민간 소비가 0.27%p, 소매판매가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행사가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sup>8)</sup>

1) "트럼프 쇼크,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다", 서울경제 2016.11.09  
 2) "현실화한 '트럼프 리스크'... 아시아 증시 폭락", 아시아경제 2016.11.10  
 3) "트럼프 후폭풍임중용 '금융불안 과도하면 증시 안정 대책... 대응여력은 충분'", 아시아경제 2016.11.09  
 4) "트럼프 쇼크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 반등... 성장친화 공약에 투자심리 회복", 조선일보 2016.11.10  
 5) "트럼프발 증시 충격파 브렉시트 때보다 크다", 세계일보 2016.11.16  
 6) "美, 한미FTA 재협상카드로 압박 나설듯", 매일경제 2016.11.09  
 7) "[특별] '민영 우리은행' 우리은행 정부 손 벗어나 집단경영체제로... 자기 행장 선임이 시점대", 한국경제 2016.11.14  
 8)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 및 경제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11.08

European stocks  
 OPEC Asian markets  
 China trade war ASX jump  
 Hong Kong property Currency ban  
 Singles Day Alibaba Brexit  
 Trumponomics Health Care Act

## 인도, 검은 돈의 근절을 위한 '화폐개혁' 단행... 고액 지폐 사용 중단·신권 공급 부족 등 경제 혼란 가중<sup>1)</sup>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는 8일(현지시간) 검은 돈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500루피(한화약 8천 7백 원)와 1천 루피(한화약 1만 7천 3백원) 등 기존의 고액권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권으로 교체하는 등 화폐 개혁을 단행

화폐 개혁 실시 1주일 째인 14일(현지시간) 은행계좌가 없는 농촌 주민과 일일수당으로 생활해 나가는 노동자 등 저소득층 국민들이 현금을 구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이 날로 커지면서 은행 앞에는 고액 신권과 유통가능한 소액권을 구하려는 인파로 북새통

현금자동인출기는 대부분 잔고 부족으로 사용 중단되었으며, 구권을 가지고는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신권 지급량을 늘리고 1인당 현금 인출 한도를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신권 공급량이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번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농부와 소상공인 등 검은 돈과는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피해 여론이 확산되며 화폐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확산

## 美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세계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급락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세계 환율이 급등하여 멕시코 페소화(9.4%), 남아프리카 란드화(2.3%), 한국 원화(1.7%)가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각국의 증시들도 일제히 급락<sup>2)</sup>

## 美, 보복관세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 실현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로 한국·일본·대만으로 분석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중국에 45%의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의 무역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의 수출 둔화로 주변국인 한국·일본·대만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 전망<sup>3)</sup>

## 홍콩, 주식 반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sup>4)</sup>

## 홍콩 아파트, 평당 약 5억 5천 5백만원으로 아시아 지역 최고가 아파트 매매 기록 재갱신<sup>5)</sup>

1) "India rupee ban: currency move is bad economics", BBC, 2016.11.14  
 2) "Emerging-market stocks, currencies shudder after Trump's election victory", Wall Street Journal, 2016.11.09  
 3) "US workers to lose in China Trade War", Wall Street Journal, 2016.11.15  
 4) "Hong Kong GDP beats forecasts", Bangkok Post, 2016.11.11  
 5) "Asia's most expensive apartment just sold in Hong Kong - again", Property Report, 2016.11.11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파리기후협정  
배출가스조작  
폐해조류 무단방류 멸종위기종밀수입  
소나무류 그린주차장 신불산케이블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목납자루

정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발표

정부는 11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합동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sup>1)</sup>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였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고, 미세먼지의 1차 배출 중심에서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등 위해성 해소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각종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예보 정확도도 현재 62%에서 75%까지(2020년) 높일 계획<sup>2)</sup>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응전략의 집행 예산이 초기 기술 개발 단계 3년 동안 423억 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

【 종전 미세먼지 연구방식과의 차이점<sup>3)</sup> 】

구분	종전의 연구방식	금번 대응 전략
기본 방향	정책현안 해소를 위한 과학 기술 (정책 우선)	과학기술 정책 간 연계 강화 (과학적 근거-기술적 수단 제공)
연구 방식	부처-영역별 개별 연구 (원인규명/배출저감/측정/예보 등 따로따로)	부처-영역 간 칸막이 제거 (단일사업단에서 종합적 연구 수행)
R&D 투자	1차 배출 중심 (PM10 및 PM2.5 직접배출)	위해성 해소 중심으로 전환 (PM2.5 직접배출 및 생성)
R&D 관리	정부 R&D 관리 부족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관리 등)	정부 R&D 관리 강화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현황 관리 강화)
민·관 협업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미비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구축 (범부처 TF, 민·관 협의회 등)

서울시 위탁 하수처리업체가 한강 하루에 하수·분뇨 불법 방류한 사실 확인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의 위탁 업체가 바이패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는 등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sup>4)</sup>,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정상운영방법이라고 해명했으나 고양시 행주어민들은 상시 감동체계 구축을 촉구<sup>5)</sup>  
※ 바이패스(By-pass)는 우천 시 또는 우천 후 물재생센터의 처리가능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1차 침전 및 소독 후 방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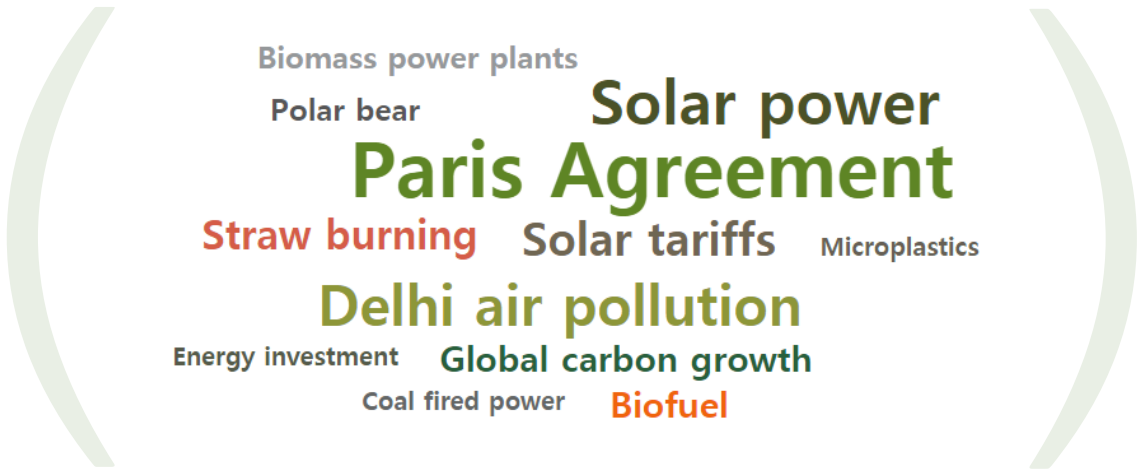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에 활용... 검역·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전염병 노출 우려

경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23마리를 밀수입하여 검역 및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의 희귀동물체험에 활용한 일당을 적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 위기종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sup>6)</sup>

폐해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 개발... 폐해조류의 친환경적 재활용 가능성 확인

부경대는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광안리에 떠밀려온 폐해조류를 이용하여 전처리와 발효과정을 거쳐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밝혀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유발하는 폐해조류의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할 전망<sup>7)</sup>

1) "정부,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에 423억 투자", 아시아경제, 2016.11.13  
2) "뒤꼬리 예산... 숨막힌 미세먼지 대책", 동아닷컴, 2016.11.14  
3) "정부, 미세먼지 단일사업단 발족,내년부터 3년간 423억원 투입", 이주경제, 2016.11.13  
4) "7년간 한강 하루에 하수 무단방류 해온 서울 하수처리업체 적발", 중앙일보, 2016.11.10  
5) "서울시-행주어민 하수 한강 무단방류 공방' 한겨레, 2016.11.11  
6) "경역안 거친 밀수 멸종위기종 동물,아동에 무지별 노출", 연합뉴스, 2016.11.09  
7) "해안가 떠밀려온 해조류로 바이오에탄올 만든다", 뉴스1, 2016.11.09



## 파리기후협정,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으로 공식적으로 발효되자마자 위기에 직면<sup>1)</sup>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자 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급증<sup>1)</sup>

196개 파리기후협정 당사국 대표가 참여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7일~18일) 의장인 살라후딘 메주아르 모로코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리기후협정은 이미 발효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각 국은 책임을 지고 무산 없이 협약을 이행시켜야한다고 강조<sup>1)</sup>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파리기후협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시게루 우시오 일본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캠페인 공약과는 다른 기후 정책을 내세울지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주목<sup>1)</sup>

한편, 차기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으로 기후협약 반대론자인 마이런 에벨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석탄 업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CEI를 운영해 온 에벨 소장이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sup>2)</sup>

### 인도 뉴델리,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비상사태 선언...근로자의 10%가 호흡기 문제로 병가 신청 有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인도상공회의소는 뉴델리 근로자의 5~10%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로 병가를 신청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인도 대기오염 문제 심각성 대두<sup>3)</sup>

### 세계 탄소배출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의 석탄 사용 감소로 세계 탄소배출 증가율 주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올해 세계 화석연료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작년보다 0.2% 증가한 364억톤으로 예측했으며, 세계 탄소배출량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의 석탄 사용 감소로 2004~2013년 간 연평균 탄소배출 증가율(2.3%) 대비 증가세가 미미해진 것으로 분석<sup>4)</sup>

### BP, 항공사 환경 오염 감소 위한 재생 바이오 연료 업체에 3천만 달러 투자

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 정유회사 BP는 펄크럼 바이오에너지(Fulcrum BioEnergy Inc.)와 10년 동안 19억 리터의 재생 바이오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조건으로 3천만 달러(한화 약 353억 원)를 투자했으며, BP는 이를 항공 연료로 이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 일조할 계획<sup>5)</sup>

1) "Trump cannot turn his back on Paris Agreement, world climate ministers warn", Independent, 2016.11.13  
 2) "Trump's climate contrarian: Myron Ebell takes on the EPA", 2016.11.11  
 3) "Up to 10% of Delhi's office-goers may have called in sick due to toxic air: Study", Economic Times, 2016.11.08  
 4) "Global carbon growth stalls as US coal continues to slump", BBC, 2016.11.14  
 5) "BP buys jet fuel made from garbage to curb airline pollution", Bloomberg, 2016.11.08

# 영수회담 책임총리제 타이푼

대포푼 **트럼프당선 최순실** 예산안  
문고리3인방 문화계특혜의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순실특검법  
방위비분담금

## 대통령, 국무총리에 내각 통할권 보장 약속... '책임총리제' 실시 여부에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실질적 내각 통할(統轄)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책임총리제' 시행 여부에 관심<sup>1)</sup>

하지만 총리 임명을 두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성향의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現정부 정책이 전면 재조명 될 우려가 있으며,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총괄할 경우도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논란 예상

한편,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도입 또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국정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사고'에 해당하지에 대해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활발<sup>2)</sup>  
※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

### 【 국무총리에 내각 통할권 부여 쟁점<sup>1)</sup> 】

총리의 임면권 보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은 총리가 해임을 건의한 국무위원을 모두 해임할 것인가</li> <li>대통령은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을 모두 임명할 것인가</li> </ul>
총리의 임면권 행사 시 여야와 사전 협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와 사전 협의(협의) 없이 임면권 단독 행사 가능 여부</li> <li>여야와 사전 협의(협의)할 경우 헌법과 충돌 논란</li> </ul>
내각 통할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처럼 내각 배분에 나설지</li> <li>이 경우 최순실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정권 쟁점 부상</li> <li>외교안보 부처의 통할 범위 제외 문제</li> </ul>

## 정부는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국방·안보·경제 분야 대응책 마련에 착수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외교·국방·안보·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sup>3)</sup>,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예상되어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운영, 트럼프 新정부의 정책수립에 협력할 방침<sup>4)</sup>

##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결정에 논란 증가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의사를 밝힌 지 18일 만인 14일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발 안보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탄핵까지 언급하며 반발<sup>5)</sup>

##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예상 외로 순항...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 여부에 관심

최순실씨 국정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가 향후 사회간접자본(SOC)·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sup>6)</sup>

1) '아권성향 총리가 장관 물갈이엔 국정 리셋... 市 수용할까', 동아닷컴, 2016.11.09  
2) '권한대행 총리체제... 헌법 71조 급부상', 매일경제, 2016.11.14  
3) '정치권 '美 트럼프 정책 대비 외교국방안보 대응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2016.11.09  
4) '국방부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요구 전망', 뉴스1, 2016.11.14  
5)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숙전숙결 논란', KBS 뉴스, 2016.11.14  
6) '최순실 사태 혼란스러운 국회... 예산안 심의는 계속 진행', 조선비즈, 2016.11.18

Trump-FTA Concession speech  
Japan-India UKIP Iran nuclear deal

# Donald Trump

Election Day Post-election fears  
Immigrant deportation  
Obama's legacy White House roles  
Trump Supreme Court

## 도널드 트럼프, 여론조사 예상 뒤엎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숫자에 도달하여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sup>1)</sup>

같은 시각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218명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미국 대선의 경우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인단 270명(총 538명의 과반수)을 달성하는 후보가 최종 승리하는 시스템<sup>1)</sup>

트럼프 당선자는 오하이오·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핵심 경합주에서 줄줄이 승리를 이룬 반면 클린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 주(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등)만 겨우 지켜냈으며, 공화당은 대선 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승리<sup>1)</sup>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은 일제히 클린턴이 2~3배 수의 차이로 압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대선 개표 초중반까지만 해도 클린턴 승리설이 확고했으나<sup>2)</sup>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여론조사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승리하자 미국 및 전세계인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sup>1)</sup>

### 美 백악관, 주요 보직 임명 시작… 트럼프家 자녀들의 내각 임명 및 입각 여부에 관심 집중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성명을 내고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대선 캠프 CEO였던 스티브 베넌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임명하였으며 남은 보직들에 트럼프 가족들의 임명설<sup>3)</sup>

### 美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300만 이민 범죄자 우선 추방 계획 발표했지만 실효성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3일(현지시간) CBS의 '60분'에 출연하여 범죄 기록을 가진 200~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거나 투옥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50만 명을 추방하여 실효성 의심<sup>4)</sup>

### 일본, 인도와 원자력 협정 체결… 원전 관련 자재 및 기술 등 수출

1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이 인도에 원전 관련 자재와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협력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sup>5)</sup>

1) "Donald Trump just blew up the electoral map", Washington Post, 2016.11.08

2) "Final presidential polls before Election Day show Hillary Clinton with slight edge over Donald Trump", Patch, 2016.11.07

3) "Donald Trump names Reince Priebus Chief of Staff, Steve Bannon as Chief Strategist", NBC News, 2016.11.13

4) "President-elect Trump says how many immigrants he'll deport", CBS News, 2016.11.13

5) "Japan, India sign agreement on civil nuclear power", Aljazeera, 2016.11.12

# NEAR & Future Weekly

---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발행 및 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박정은 본부장(052-230-1200, pje@nia.or.kr) 이정아 센터장(053-230-1281, leeja@nia.or.kr) 전인숙 선임연구원(053-230-1290, insook.jeon@nia.or.kr)	이영주 수석연구원(053-230-1285, lyj@nia.or.kr) 박지영 선임연구원(053-230-1294, jiyoung.park@nia.or.kr)
데이터 분석	㈜코난테크놀로지 김예슬, 나소현, 노정아, 백수진, 홍순진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변호사 아시아경제 백재현 본부장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 핸디소프트 기술연구소 이승호 소장 법무법인 이산 이형범 변호사 대구경북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임규채팀장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정용남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 채여라 실장 소셜컴퓨팅연구소 한상기 대표/공학박사	
주소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제주 글로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화	(053) 230-1114	
팩스	(053) 230-1907	
URL	<a href="http://www.nia.or.kr">http://www.nia.or.kr</a>	

-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미래전략정책지원)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보고서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http://www.nia.or.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kbig.kr](http://kbig.kr))에서 볼 수 있습니다.